

제5장

첫 번째 환상: 예수 그리스도(1:12-16)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일곱 개의 환상을 살펴보자. 첫 번째 환상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다. 사도 요한은 복음 증거하는 일로 로마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어 밧모섬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1:9). 이에 대해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1:9).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등장할 때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와 핍박을 당하였다. 특히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를 당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된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장수하며 부자로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 냉대와 멸시와 핍박을 받으며 살아 왔다. 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와 갈등하며 핍박을 받게 된다.

사도 요한도 반국가적인 자로 낙인되어 밧모섬에 귀양되었고, 그 섬에서 주의 날에 한 환상을 보게 된다. 그는 먼저 아홉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홉 가지의 상징적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다. 이 아홉 가지의 모양은 뒤이어 소개되는 ‘일곱 교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우주와 교회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 계신다.

1.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요한은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청동 같고, 음성은 물 소리와 같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 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홉 가지의 모양을 보게 된다. 이 아홉 가지의 예수님의 상징적 모양은 모두 아래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모습들이다.

계 1:12-16	겔 1:25-28	단 10:5-6	단 7:9-14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긴 옷		세마포 긴 옷	
금띠		금띠	
흰머리 털			흰머리 털
불꽃 같은 눈	불	불꽃 같은 눈	불
청동* 같은 발	타오르는 쇠	빛나는 청동	
물 같은 음성	물 같은 소리	무리의 소리	
손에 든 별들			
해 같은 얼굴	광채	번개	

* 참고, 개역성경에서는 청동을 놋이나 주석으로 번역

2. 환상에 대한 설명

1)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다니엘 7:9-14절에서 인용된 모습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신하들은 신하의 옷을 입으며, 경찰은 경찰복을 입는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에 끌리는 옷은 어떤 자들이 입는 옷일까? 그것은 제사장들의 옷이다(출 28:4,8).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하는가? 성경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예수님은 이 땅과 우주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여 준다.

2) 가슴에 띤 금띠

다니엘은 한 환상 속에서 허리에 금띠를 한 어느 한 사람을 보았다(단 10:5). 허리에 맨 금띠는 대제사장의 띠를 의미한다(출 28:8). 즉 요한은 환상 속에서 제사장되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리가 아닌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계 15:6). 가슴의 금띠는 고대 시대에 왕의 복장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님이 존귀한 왕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것을 나타낸다.

3)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와 머리털

양털 같은 흰 머리와 머리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다(단 7:9).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머리색이 하얗게 변한다. 백발은 노인의 지혜를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하얀 것은 예수님은 매우 순결하시며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심을 나타낸다.

4) 불꽃 같은 눈

불꽃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한다(단 7:9, 겔 1:4,13,27, 출 3:2, 19:18). 하나님이 불꽃으로 현현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심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관찰하시며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에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을 보여 준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 마음과 생각의 비밀들을 모두 아신다(히 4:12-13). 이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감추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는 전지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 준다.

5)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청동 같은 발

성경에서 청동은 능력, 권위, 주권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청동 같은 발은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아주 강하고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이었다. ‘강하고 빛남’은 ‘능력과 흠이 없는 순결성’을 상징한다. 이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과 주권 뿐만 아니라, 강한 능력과 흠 없는 순결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풀무불에 단련한 청동은 대개 전쟁에 쓸 무기들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는 예수님의 풀무불에 단련한 청동 같은 발은 세상과 싸우시며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준다. 즉 예수님의 강한 청동 같은 발은 교회를 굳건히 지키시고 보호도 하시지만, 반대로 불의한 자들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 준다.

6)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겔 1:24).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크고 권위있는 음성을 의미한다(출 19:16,19). 즉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강하게 흐르는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권위있고 힘찬 음성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참 선지자이심을 보여 준다.

7) 오른손에 들린 일곱 별

일곱 별은 ‘일곱 사자’를 의미한다(계 1:20). 많은 주석가들은 ‘사자’를 ‘목사’라고 말하면서, 목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존재이므로 엄청난 권위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자’는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앙겔로스’는 천사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일곱 사자’는 일곱 교회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받은 천사들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일곱 천사가 들려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며 인도하시는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보여 준다.

8) 입에 문 좌우에 날선 검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히 5:12). 이와 관련하여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묘사한다. 만약 요한이 만약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원했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풀이

나오고'라고 묘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이다(시 19:10, 119:103).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입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전쟁 때에 날선 검은 어떤 이들은 보호하고, 어떤 이들은 죽이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이러한 날선 검으로 묘사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신다”(19:15)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치시며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그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감찰하셔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또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도전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9) 해와 같이 힘있게 비취는 얼굴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번갯빛 같은’ 예수님의 얼굴을 목격한다(단 10:6). 에스겔도 한 환상 중에 여호와의 광채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는 그 광채의 얼굴을 가르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묘사한다(겔 1:28). 사사 드보라도 주의 백성들의 승리를 ‘해가 힘 있게 솟아오른’(삿 5:31)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것은, 그는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 승리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매우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3. 결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홉 가지의 모양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하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교훈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과 칼날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나아가 물소리 같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다.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알리신다.

이에 반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셔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교훈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 악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실 것임을 알리신다.